

# 揚雄《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 고찰

이 연 주\*

<目次>

I. 서론	IV. 고대 문헌의 용례로 본 조선 어휘
II. 《方言》書名으로부터 본 조선 어휘의 수집과정	V. 《方言》 조선 어휘의 언어적 특징
III. 지명의 병기로 본 조선지역의 언어	VI. 조선 어휘의 중국어 표준어화 과정
	VII. 맺음말

## I. 서론

중국은 秦代에 이르러 전국을 통일하고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발판을 다지기 시작했다. 기원전 221년 중국을 통일한 진시황은 곧이어 六國의 문자를 통일했다고 전해진다. 정치적인 통합에 이어 문자의 통일이 이루어지면서 정권은 더욱 공고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실생활에서 사용되던 당시의 언어상황은 어떠했을까? 광대한 지역에서 각기 다른 말을 사용하고 살던 사람들의 말과 어휘가 정치적 통합 이후 어떻게 변화했을까? 지금 우리는 그 구체적인 면면을 알기 어렵다. 다만 부분적이거나 2000년 전 당시의 口語를 기록해놓은 《方言》으로부터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先秦에서부터 漢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각 지역의 방언어휘를 기록해놓은 《方言》은 그 저술 배경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깊은 연관이 있을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것으로 생각된다. 秦의 중원통일에 이어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던 漢代에는 영토 확장에 따른 언어, 문자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을 것이다. 《說文解字》의 등장은 당시의 문자정리 작업과 고대문자에 대한 관심을 짐작케 하고, 《方言》의 등장은 각 지역의 언어와 통용어에 대한 당시의 관심을 대변하고 있다. 영토 확장에 따른 언어와 문자의 표준화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였을 것이다.

《方言》에 나오는 朝鮮泲水지역은 遼東지역에서부터 지금의 한반도 북부에 이르는 지역으로 추정된다. 역사적으로 볼 때 春秋시대에는 燕의 동북부에 東胡라는 집단이, 그리고 그 동쪽에 朝鮮이 燕을 위협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全國시대 燕이 이 지역을 침입하여 東胡를 물리치면서 遼寧지역은 燕의 세력권이 되고, 朝鮮의 중심지는 청천강 유역으로 축소된다. 그러다가 전국시대 말기 秦이 중국을 통일하면서 燕나라의 유이민 집단이 대거 동쪽으로 이주한다.<sup>1)</sup> 이후 漢代에 이르러 武帝는 고조선을 정복하고 이 지역에 漢四郡을 설치한다.

《方言》에서 말하는 朝鮮이라는 지역은 여러 측면에서 燕과 매우 긴밀한 관계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고 역사적으로도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朝鮮과 燕의 언어상황은 《方言》에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중국학자들이 주장하듯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들은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한 방언이었을까?<sup>2)</sup> 《方言》에 北燕, 燕之北鄙, 燕之北郊, 燕之外郊, 燕之東北, 燕之外鄙 등으로 표기된 北燕지역은 언어적으로는 왜 조선과 밀접한 것일까?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들은 언어

- 
- 1) 진나라가 망하고 한나라 초기에 중국의 동부와 조선의 서부 사이의 공백지대에 살던 유민세력과 토착민 세력을 규합하여 정치세력을 형성한 연나라 사람 위만이 왕검성(지금의 평양)을 근거지로 나라를 세우고 고조선을 승계했다는 설이 역사학계에서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를 참고로 정리함)
  - 2) 李恕豪(2002)는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가 연, 제 일대의 중국어 방언과 장기간에 걸친 접촉에 의해 형성된 중국어 방언의 한 종류로 당시 토착민들의 언어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적으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을까? 본고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염두에 두고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II. 《方言》書名으로부터 본 조선 어휘의 수집과정

揚雄(BC53~AD18)이 지은 《方言》의 원래 서명은 《輶軒使者絕代語釋別國方言》이다. 《方言》의 원래 서명을 ‘輶軒使者’, ‘絕代語釋’, ‘別國方言’으로 구분하여 이 세 가지 점으로부터 《方言》에 수록된 조선어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① 輶軒使者: 應劭의 《風俗通義·序》에 따르면 일찍이 周秦시대에 매년 추수 이후 농한기에 통치자가 파견한 사신이 ‘輶軒’이라는 수레를 타고 다니며 농촌 각지에서 시가와 민요, 방언을 채집하는 제도가 있었다. 채집한 자료들은 향에서 읍으로 보내지고 다시 국으로 보내져 최종적으로는 이를 모아 천자에게 바쳐졌다. 통치자는 이를 통해 직접 다니지 않고도 각 지역의 풍속과 민정을 살피는 효과를 거두었다. 이렇게 채집된 자료들은 누적되어 조정의 밀실에 보존되었으나 안타깝게도 秦이 망하면서 이들 자료들이 거의 산실되었다. 그러다가 漢代이후 방언에 대한 관심이 다시 일어났다. 蜀郡 사람인 嚴君平이 소장한 자료 약 1,000자가 있었으며, 양웅의 스승인 臨邛지역의 林閭翁孺도 방언을 정리했던 것으로 보인다.<sup>3)</sup> 양웅의 《方言》은 이러한 전인들의 기초 위에서 탄생하였다. 기원전11년 장

3) 《風俗通義·序》: “周秦常以歲八月遣輶軒之使, 求異代方言, 還奏籍之, 藏於密室. 及嬴氏之亡, 遺棄脫漏, 無見之者. 蜀人嚴君平有千餘言, 林閭翁孺才有梗概之法. 揚雄好之, 天下孝廉衛卒交會, 周章質問, 以次注續. 二十七年爾乃治正, 凡九千字.(주진대에는 해마다 항상 8월이면 유현사자를 파견하여 방언을 수집하게 하고 돌아오면 그것을 책으로 엮어 밀실에 보관하였다. 진이 망하면서 유실되어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었다. 촉군 사람 엄군평이 1천 여 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고, 임려옹유는 대강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 양웅이 방언을 좋아하여 효렴과 병사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묻고 조사하여 기록하기를 27년 동안 계속하여 9천여 자를 완성하였다.)”

안에서 황문시랑을 지내고 있던 양웅은 成帝(BC32~BC7)에게 글을 올려 자신에게 3년간 공무에서 벗어나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황제는 그의 요청을 수락했으며 궁 안의 고대 기록물들을 볼 수 있도록 허락했다.<sup>4)</sup> 이후 그는 전국 각지의 방언어휘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조사 대상은 경사에 온 관리와 조정에 천거된 舉人 및 수도를 지키러 온 병사들이었다. 그는 각기 다른 지역, 다른 계층,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방언을 조사해 기록하고 이를 정리하는 작업을 27년간 계속하였다.

양웅 《方言》에 수록된 방언 어휘가 수집된 경로는 대략 두 가지로 보인다. 하나는 周秦시기 ‘輜軒使者’에 의해 채집되어 조정의 밀실에 보존되다가 몇몇 학자의 손을 거쳐 양웅에 의해 최종 정리된 것, 다른 하나는 漢代의 영토 확장 이후 당시 경사에 와있던 관리와 舉人, 병사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한 것이다. 그렇다면 조선 어휘는 어떤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을까? 漢이전 조선이 중국의 영역에 속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자에 의해 수집되었을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대신 당시 경사에 와있던 관리나 舉人,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 周秦시기의 ‘輜軒使者’에 의한 채집방식이 漢代이후에는 주로 정복한 지역에서 온 병사와 관리를 통해 수집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던 것으로 보인다. 방언의 수집은 당시의 통치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통치자는 방언의 수집을 통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던 각 지역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絶代語釋: 이전 시대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대가 끊어진 말, 즉 고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다가 표준어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

4) <揚雄答劉歆書>: “雄爲郎之歲, 自奏少不得學, 而心好沈博絶麗之文; 願不受三歲之奉, 且休脫直事之繇, 得肆心廣意, 以自克就. 有詔可不奪奉, 令尙書賜筆墨錢六萬, 得觀書於石室.(제가 낭관이 된 해에 스스로 황제께 고하기를, 어려서 배움을 얻지 못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심오하고 뛰어난 글을 좋아하니, 원컨대 삼년간 녹봉을 받지 않고 봉직의 수고로움에서 벗어나, 마음껏 뜻을 넓혀서 학문의 길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사 청했습니다. 황제께서는 조서를 내리시어 녹봉을 빼앗지 않으시고, 尙書로 하여금 필묵과 육단 량을 내리게 하시며 석실에서 책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는 어휘에 대한 풀이라는 뜻이다. 《方言》은 당시 각 지방의 방언 어휘를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각 방언 중에 남아있는 옛말을 풀이하었다. 예를 보자면, “敦·豐·厯·奔·樛·般·嘏·奕·戎·京·奘·將은 크다(大)의 뜻이다. 무릇 사물이 큰 모습을 豐이라고 한다. 厯은 깊이가 큰 것이다. 東齊海岱 지역에서는 奔라고 하거나 혹은 樛라고 한다. 宋魯陳衛 지역에서는 嘏라고 하거나 혹은 戎이라고 한다. 秦晉 지역에서는 무릇 사물이 장대한 것을 嘏라고 하거나 혹은 夏라고 한다. 秦晉 지역에서는 무릇 사람이 큰 것을 奘이라고 하거나 혹은 壯이라고 한다. 연의 北鄙지역이나 齊楚의 교외에서는 京이라고 하거나 혹은 將이라고 하는데 모두 古今語다. 처음에 각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을 때의 말이다. 오늘날 더러 같은 것도 있으며, 또 옛 풍속을 기록해놓은 옛날 서적에는 그 지역적인 특색이 없어지지 않고 말속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풀이하었다.”<sup>5)</sup>고 했다.

그러면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는 ‘絶代語’일까? 만약 조선 어휘가 ‘絶代語’라면 이는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가 고대 중국어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중국학자들은 箕子朝鮮과 연계하여 漢 이전에 중국어를 사용하던 중국인들이 조선지역으로 이주하여 중국어를 사용하였는

5) 《方言》: “敦·豐·厯·奔·樛·般·嘏·奕·戎·京·奘·將, 大也. 凡物之大貌曰豐. 厯, 深之大也. 東齊海岱之間曰奔, 或曰樛. 宋魯陳衛之間謂之嘏, 或曰戎. 秦晉之間凡物壯大謂之嘏, 或曰夏. 秦晉之間凡人之大謂之奘, 或謂之壯. 燕之北鄙齊楚之郊或曰京, 或曰將. 皆古今語也. 初別國不相往來之言也. 今或同, 而舊書雅記故俗, 語不失其方, 而後人不知, 故爲之作釋也.(敦·豐·厯·奔·樛·般·嘏·奕·戎·京·奘·將은 大(크다)다. 무릇 사물이 큰 모습을 豐이라고 한다. 厯은 깊은 것이 매우 큰 것이다. 東齊海岱 지역에서는 奔라고 하거나 혹은 樛라고 한다. 宋魯陳衛 지역에서는 嘏라고 하거나 혹은 戎이라고 한다. 秦晉 지역에서는 무릇 사물이 장대한 것을 嘏라고 하거나 혹은 夏라고 한다. 秦晉 지역에서는 무릇 사람이 큰 것을 奘이라고 하거나 혹은 壯이라고 한다. 연의 北鄙지역이나 齊楚의 교외에서는 京이라고 하거나 혹은 將이라고 하는데 모두 古今語다. 처음에 각 나라들이 서로 왕래하지 않을 때의 말이다. 오늘날 간혹 같은 것도 있지만 옛 풍속을 기록한 옛 서적에는 그 지역적인 특색이 말속에 잃지 않고 남아있다.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풀이하었다.)”(권1-12)

데 시간이 흐르면서 본토의 중국어는 변화하였으나, 이 지역에서 사용되던 중국어는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 중국학자들처럼 조선지역에 중국인의 후예가 이주해와 살면서 고대 중국어를 사용했다면 《方言》의 조선 어휘는 중원지방은 아니더라도 중국의 다른 방언과 어떤 연관성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다음 절에서 논하겠지만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는 중국어 방언과는 별 연관이 없는, 상당히 고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③ 別國方言: 각기 다른 지역의 방언을 의미한다. 《方言》에서는 옛 국명<sup>6)</sup>, 주 이름<sup>7)</sup>, 군 이름<sup>8)</sup>, 현 이름<sup>9)</sup>, 물 이름<sup>10)</sup>, 산 이름<sup>11)</sup>, 민족명<sup>12)</sup> 등을 사용하여 방언 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방언 지역을 나타내는 방법은 아주 세분되어 있지만 실제로 방언을 기술하는데 있어서는 종종 여러 지역을 병기하여 이들 지역에서 동일한 어휘가 통용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는 《方言》을 통해 漢代이전부터 漢代까지의 변화는 물론 漢代 이후의 변화와 방언어휘의 표준어로의 유입 등 고대 중국어 어휘의 다양한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예로 《方言》에는 ‘기르다(養)’의 뜻을 가진 여러 방언 어휘가 수록되어있는데, 晉衛燕魏에서는 ‘기르다(養)’를 台, 陳楚韓鄭에서는 鞠, 秦에서는 陶, 汝潁梁宋에서는 胎, 또는 艾라고 했다는 기록이 있다.<sup>13)</sup> 《方言》의 ‘鞠’과 ‘艾’는 《詩經》에서 ‘기르다’의 의미로 사용된

- 
- 6) 옛 국명으로는 秦, 晉, 魏, 趙, 燕, 齊, 魯, 衛, 宋, 陳, 鄭, 周, 楚, 吳, 越 등이 있다.
- 7) 주 이름으로는 幽, 冀, 并, 豫, 青, 兗, 徐, 揚, 荊, 雍, 涼, 梁, 益 등이 있다.
- 8) 군 이름으로는 代, 汝南, 沛, 平原, 臨淄, 會稽, 廣漢, 巴, 蜀 등이 있다.
- 9) 현 이름으로는 曲, 阜, 鉅, 野, 郢 등이 있다.
- 10) 물 이름으로는 江, 河, 汾, 濟, 汝, 潁, 淮, 泗, 湘, 沅, 洌水 등이 있다.
- 11) 산 이름으로는 岱(태산), 衡, 嵩, 九嶷 등이 있다.
- 12) 민족명으로는 朝鮮과 甌가 있다.
- 13) 《方言》: “台·胎·陶·鞠, 養也. 晉衛燕魏曰台, 陳楚韓鄭之間曰鞠, 秦或曰陶, 汝潁梁宋之間曰胎, 或曰艾.(台·胎·陶·鞠은 養(기르다)이다. 晉衛燕魏 지역에서는 台라고 하고, 陳楚韓鄭 지역에서는 鞠이라고 하며, 秦에서는 또 陶라고도 한다. 汝潁梁宋 지역에서는 胎라고 하거나 혹은 艾라고 한다.”(권1-5)

예를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方言》을 통해 우리는 《詩經》의 ‘鞠’이 《方言》시기에 이르러 陳楚韓鄭지역의 방언 어휘로 변화하였으며, 《詩經》의 ‘艾’가 《方言》시기에 이르러서 汝潁梁宋지역의 방언 어휘로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先秦의 어휘가 《方言》시기에 이르러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또 《方言》에서는 후대에 이르러 표준어로 유입된 어휘도 볼 수 있는데, 현재 표준어로 사용되는 ‘襤褸(의복이 남루하다)’<sup>15)</sup>와 ‘懲慝(재촉하다)’<sup>16)</sup>은 《方言》에 南楚 방언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先秦시기 楚지역에서 호랑이를 나타내던 ‘於菟<sup>17)</sup>’는<sup>18)</sup> 《方言》시기에는 南楚지역에서 간혹 사용되는 어휘로 변화되었다.<sup>19)</sup> 아마도 先秦시기의 楚지역 말은 점차 중국어화 되면서 호랑이를 나타내던 ‘於菟’가 《方言》시기에 이르러서는 南楚 지역에서 간혹 사용되는 어휘로 사용지역이 축소되고 사용빈도수도 줄었던 것 같다. 우리는 《方言》을 통해 당시 지역적 언어의 차이를 초월하는 통용어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sup>20)</sup>, 또 先秦시기의 어휘가 漢代에는 방언이 된 것도 알 수 있다. 漢代

14) 《詩經·小雅·蓼莪》: “母兮鞠我”의 ‘鞠’과 《詩經·小雅·南山有臺》: “保艾爾後”의 ‘艾’는 모두 ‘기르다’의 의미다.

15) 《方言》: “襤褸·須捷·挾斯, 敗也. 南楚凡人貧衣被醜弊謂之須捷. 或謂之襤褸, 或謂之襤褸.(襤褸·須捷·挾斯는 敗(남아서 헤어지다)다. 南楚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빈궁하여 의복이 추하고 낡은 것을 가리켜 須捷이라고 하거나 혹은 襤褸이라고 하거나 혹은 襤褸라고 한다.”(권3-49)

16) 《方言》: “食閭·懲慝, 勸也. 南楚凡己不卻喜, 而旁人說之, 不欲怒, 而旁人怒之, 謂之食閭, 或謂之懲慝.(食閭·懲慝은 勸(권하다)이다. 南楚에서는 자신은 좋아하지 않으나 남이 좋아하게 하는 것, 자신은 노하지 않으나 남이 노하게 하는 것을 食閭이라고 하거나 혹은 懲慝이라고 한다.”(권10-41)

17) 於菟의 한자음은 오토다.

18) 《左傳》宣公4年: “楚人謂乳穀, 謂虎於菟.(초나라 사람은 젓을 穀이라 하고 호랑이를 於菟라 한다.)”

19) 《方言》: “虎, 陳魏宋楚之間或謂之李父, 江淮南楚之間謂之李耳; 或謂之於菟. 自關東西或謂之伯都.(호랑이는 陳·魏·宋·楚 지역에서는 李父라고 하고, 江淮·南楚 지역에서는 李耳라고 하거나 또는 於菟라고 한다. 함곡관의 동쪽과 서쪽 지역에서는 伯都라고 부르기도 한다.”(권8-1)

20) 《方言》: “臄·彫, 豐也. 自關而西秦晉之間凡大貌謂之臄, 或謂之彫; 豐, 其通

의 방언 어휘가 지금의 표준어가 된 경우도 볼 수 있고, 또 동일한 어휘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발음이 달라져 ‘轉語’로 기록된 경우도 볼 수 있다.<sup>21)</sup> 우리는 《方言》을 통해 漢代를 전후로 한 중국의 언어상황 및 중국어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다.

《方言》은 중국어 방언은 물론 漢代의 영토 확장과 더불어 당시 중국의 영역으로 편입된 이민족 지역의 언어도 ‘별국방언’으로 간주하여 수집 대상으로 삼았으며,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서 조선지역 어휘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方言》에 수록된 조선지역 어휘는 상대적으로 문헌자료가 빈약한 이 지역의 언어, 문화 연구에 있어서 귀중한 단서를 제공하며, 우리는 《方言》을 통해 당시 조선지역의 사회 면모를 엿볼 수 있다.

### III. 지명의 병기로 본 조선지역의 언어<sup>22)</sup>

雷虹霽(2007)는 秦漢시기의 문화권역을 《史記·貨殖列傳》에 의거하여 15개 경제문화권으로, 《漢書·地理志》에 의거하여 25개 민속문화권으로, 그리고 《方言》에 의거하여 12개 방언문화권으로 구분하였다. 《史記·貨殖列傳》에 의거한 15개 경제문화권에는 조선과 관련된 지역이 없으며, 《漢書·地理志》에 의거한 25개 민속문화권에는 燕北과 朝鮮諸郡이 이에 해당하고, 《方言》에 의거한 12개 방언권에서는 北燕朝鮮洌水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李恕豪(2002)의 분류에 따른 12개 방언문화권 가운데 北燕朝鮮洌水방언권은 北燕지역과 朝鮮洌水지역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北燕지역과 朝鮮洌水지역은 때로는 단독으로, 때로는 다른 지명과 병기되

語也。(臆·厖은 豐(풍성하다)의 뜻이다. 함곡관으로부터 서쪽 지역 秦晉사이에 서는 큰 모양을 臆이라고 하고, 혹은 厖이라고도 한다. 豐은 통어다.”(권2-2)

21) 《方言》: “庸謂之僂, 轉語也。(庸을 僂이라고 한다. 전어다.)”(권3-48)

22) 이에 관한 내용은 졸고(2008)에서 보다 상세히 논하였다.

어 나오는데, 지명의 병기는 당시 이 지역에 공통어휘가 사용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는 《方言》의 지명의 병기를 통해 이들 지역 간의 언어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또 문화적, 언어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을 추측해 볼 수 있다.

《方言》에서 조선이라는 지명은 모두 26번 언급되었는데 대부분 北燕, 洌水라는 지명과 함께 병기되었고 北燕과의 병기를 제외하고 다른 지명과는 燕과 1번, 燕代와 1번 병기되었고 다른 지명과는 병기되지 않았다. 洌水는 21번 언급되었는데 모두 조선과 병기되었다. 北燕은 모두 46번 언급되었는데 北燕 단독이 13번, 朝鮮洌水와 병기가 21번, 燕과의 병기가 2번, 東齊海岱와의 병기가 4번, 齊之北鄙와의 병기가 1번, 齊楚之郊와의 병기가 1번, 梁宋齊楚와의 병기가 1번, 趙魏之郊와의 병기가 1번, 秦晉之北鄙翟縣之郊와의 병기가 1번, 越之垂甌吳之外鄙와의 병기가 1번 등 비교적 여러 지명들과 병기되었다.

이러한 지명의 병기로부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첫째, 조선과 洌水는 동일한 언어권이였다. 둘째, 조선지역에서 사용된 어휘는 당시 중국의 다른 지역과는 상당히 달랐다. 셋째, 朝鮮洌水와 北燕지역은 언어적으로 상당히 가까웠다. 넷째, 그러나 北燕지역은 朝鮮洌水지역과는 달리 東齊海岱지역, 齊, 楚, 梁, 宋, 趙, 魏, 秦, 晉 심지어 吳, 越지역과도 공통어휘가 사용되어 이들 지역과 접촉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北燕지역은 바다를 건너 지금의 산둥 반도에 위치한 東齊海岱지역과의 공통어휘가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아 당시에 바다를 통한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케 한다.

《方言》에 나타난 北燕과 조선의 지명의 병기는 이 두 지역이 많은 공통어휘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지역이 문화적으로 또 언어적으로 상당히 가까웠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전국시기 燕에 통합된 北燕은 왜 燕보다 조선과 더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일까? 《方言》에 나오는 지명을 통해서 우리는 西漢 이전 시기 동북 지역에 대표적인 두 가지 언어권, 즉 조선어권과 燕방언권이 있었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조선어권에는 《方

言》의 朝鮮泚水지역과 北燕지역이 포함되며, 燕방언권에는 《方言》의 燕지역과 代지역이 포함된다. 이들 지역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고증해내는 일은 쉽지 않지만 만약 조선지역이 遼東지역을 포함한 옛 고조선지역이라면 이 어휘들은 고조선의 어휘들이며, 후에는 고구려어로 계승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언어접촉의 측면에서 볼 때 조선 어휘는 고립상태를 보이는 반면, 北燕어휘는 다른 지역들과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선지역에서 사용된 어휘는 중원의 다른 지역과는 전혀 달랐으며 또 燕지역과도 상당히 달랐던 것 같다. 반면, 燕의 일부로 편입된 北燕지역은 燕지역과의 공통어휘가 매우 드물었는데, 중국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놓고 당시 전국적으로 방언을 조사한다는 것은 양웅 개인의 힘만으로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에 많은 누락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석하거나<sup>23)</sup>, 燕방언이 趙, 齊지역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北燕지역과 달라지기 시작했다<sup>24)</sup>고 해석하는 것<sup>24)</sup>은 모두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이보다는 조선지역과 공통어휘가 많은 北燕지역은 원래 조선지역과 동일 언어권이었다가 후에 燕의 확장으로 인해 燕의 영역이 된 지역으로, 정치적 변화에 상관없이 언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 이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 같다. 北燕이 정치적으로는 燕과 통합되어 하나의 정치체제가 되었음에도 언어에 있어서는 조선지역과 더 밀접함을 보이는 이러한 현상은 燕과 代지역에서도 나타난다. 일찍이 趙나라에 통합된 代지

23) 李恕豪(2002)는 양웅 한 사람의 힘으로 당시 전국의 방언을 전면적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수집에 있어 많은 누락이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p.163)

24) 李恕豪(2002)는 주초에 소공에 봉해진 석은 중국 북방에 연나라를 세웠다. 이후 연 방언은 장기간에 걸쳐 끊임없이 北燕 조선지역으로 확장, 침투되었다. 그래서 北燕 조선 방언에는 각기 다른 시기의 연 방언 어휘가 역사적 단층을 이루었다. 이는 가장 오래된 北燕 조선 방언의 모습을 변화시켰다. 이때의 北燕 조선 방언은 대체로 연 방언과 가까웠으며 동일 방언권에 속했다. 연 방언이 이후 조, 제 방언들과 빈번히 접촉하면서 北燕조선 방언과 달라졌고, 서한 말기에 이르러서는 연 방언과 北燕 조선 방언이 서로 다른 방언이 되었다. 北燕方言은 초기의 연 방언 어휘(제와 동제의 일부 어휘 포함)를 많이 보존하고 있는 반면 연 방언은 오히려 드물다고 했다.(pp.162~165)

역<sup>25)</sup>은 《方言》의 지명의 병기에 있어 燕과 밀접한 것으로 나타난다. 《方言》이 저술된 漢代에 있어 조선지역은 武帝 때 漢四郡이 설치되어 행정적으로는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었지만 언어적으로는 조선 고유의 독자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지역들 간에 공통어휘가 많이 사용되었다면 이들 지역은 문화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문화적으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方言》의 지명의 병기로부터 도출해낼 수 있는 각개 어휘의 사용구역을 일종의 등어선이라고 간주한다면, 이 등어선의 의미는 정치적 또는 행정적 경계보다는 동일 문화권 또는 동일 언어권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된다. 조선 어휘처럼 중국의 다른 지역과 공통 어휘가 전혀 없다면 문화적으로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또 고대 사회에서 문화권이 다르다면 언어적으로도 달랐을 가능성이 크다. 설사 그 당시 조선지역에 중국계 유이민이 유입되었다고 해도<sup>26)</sup> 《方言》에 나타난 조선 어휘는 상당히 고립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어 언어적으로 조선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전국시기에 燕의 영역으로 편입된 北燕지역은 상당 기간 朝鮮洌水지역과 언어적으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아울러 서서히 다른 방언들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 다른 방언과의 공통어휘가 늘어나 원래 같은 언어권이었던 朝鮮洌水지역과 차츰 언어의 이질화가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 《方言》에 나타난 北燕과 조선지역은 정치적으로는 일찍이 전국시기에 분리되었는지 모르지만 문화적으로는 당시까지 상당부분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고대사회에서 통치 세력이 바뀌었어도 통치 세력의 언어가 토착 세력의 언어를 대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언어교체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통합 이후 상당한 기간이 걸렸음을 시사하고 있다.

25) 代는 BC 476년 趙에 의해 멸망했으며, 趙는 여기에 代郡을 설치하였다. (李愬豪, 2002. p.47)

26) 이 지역에 주요한 유이민의 유입은 고조선 후기와 한 무제의 한사군 설치시기에 이루어졌다고 한다.

현재 《方言》에 나오는 조선지역의 어휘가 다른 북방계 언어가 아닌 후대의 고구려어로 승계된 어휘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어휘들과 의미가 통하는 중국어 어휘가 있다고 해서 이 어휘들이 당시 동북지역에 이주해와 살던 중국인들의 어휘라고 결론을 내리거나<sup>27)</sup>, 또는 이 어휘를 단순히 발음이 유사한 현대 한국어 어휘와 대응시키는 것은 모두 무리가 있다<sup>28)</sup>. 다만 이 어휘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지금의 한반도 북부지역 및 중국의 동북지역에서 사용되던 것들이며, 당시 중국에서 사용되던 어휘들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 IV. 고대 문헌의 용례로 본 조선 어휘

고대 한국어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北燕朝鮮洌水지역의 어휘들은 고조선의 어휘들로 추정되며 또한 고구려어의 祖語일 것이라고 추측되는데, 현존하는 고구려 어휘가 극소수인 점을 감안할 때 이 어휘들은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언어와 문화 및 역사를 연구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다면 《方言》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각 지역에서 쓰이던 방언 어휘들을 어떤 방식으로 기록하였으며, 또 이들을 어떻게 문자화하였을까?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대에 광대한 지역의 어휘를 수집하는 어려움과 함께 이는 《方言》을 저술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과제였을 것이다. 예컨대 조선지역에서 사용되던 어휘는 당시

27) 陳榴(2005)는 朝鮮洌水 어휘 26예 가운데 𪔵(1-8), 湮(3-6), 譚(3-6), 𪔵(3-7), 𪔵角(4-44), 𪔵(5-1), 𪔵(5-1), 𪔵(5-11), 𪔵(5-27), 𪔵(5-32), 樹(5-36), 膊(7-15), 𪔵盈(7-18), 漢漫(7-25), 𪔵眩(7-25), 樹植(7-31), 𪔵(8-2), 抱(8-4), 𪔵(8-5), 𪔵(8-9), 𪔵(8-9), 𪔵(11-16) 등 18예가 중국어 어휘라고 주장했다.

28) 陳榴(2005)는 朝鮮洌水 어휘 26예 가운데 𪔵(2-5), 揚(2-5), 策(2-8), 葉禴(2-29), 搖扇(2-34), 策(3-11), 壯(3-11), 𪔵(3-12), 𪔵(6-31), 掬(7-12) 등 8예가 조선어 어휘라고 주장했다.

그 지역 언어의 발음형태로 존재했을 것이다. 어렵사리 방언 어휘를 수집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떤 글자로 표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 또한 저자의 입장에서는 큰 고민거리였을 것이다. 고대 국어사 자료가 빈약한 현실 속에서 《方言》에 기록된 조선 어휘는 귀중한 정보를 담고 있지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조선 어휘가 고대 중국어에 속한다는 주장도 가능하고, 또 고조선의 어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方言》에 실린 조선 어휘가 조선 고유의 어휘인지 아니면 중국어 어휘인지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대부분의 중국학자들은 조선 어휘를 중국 고대문헌에서 그 용례를 찾아 이 어휘들이 중국어임을 입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들에는 억지스러운 면이 많다. 만약 조선 어휘가 《方言》 이전의 중국 고대 문헌에 사용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다면 고대 중국어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方言》은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후 중국어 방언 또는 이민족 어휘가 중국어 표준어로 유입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기 때문에 《方言》 이후의 문헌에 사용된 용례는 이 어휘들이 《方言》에 수록된 이후 이것을 근거로 문헌에 인용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1. 《方言》 이전의 문헌에 사용된 어휘

##### ① 葎(3-11): 찌르다

《爾雅》에 나오며<sup>29)</sup>, 《說文》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다.<sup>30)</sup> 《爾雅》는 저자와 편찬시기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方言》보다 이른 시기의 문헌이며, 《方言》이 《爾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어휘는 《說文》에도 유사한 내용이 있지만 《說文》은 《方言》보다 약

29) 《爾雅》: “葎, 刺.(葎는 刺(찌르다)의 뜻이다.)” 《注》云: “草刺針也. 關西謂之刺, 燕北朝鮮之間曰葎, 見《方言》.(풀이 찌르다. 關西에서는 刺라고 하고, 燕北朝鮮之間에서는 葎라고 한다. 《方言》을 참조하라.)”

30) 《說文·艸部》: “葎, 葎也.”

간 늦은 시기의 문헌이다.

② 𪗇(5-27): 삽, 가래, 쟁개비

《爾雅》에 ‘𪗇’을 ‘𪗇’이라고 한다는 기록이 있으며, 郭璞 注에 “모두 鍬, 鍤의 옛 글자”라고 했다<sup>31)</sup>. 《說文》에 ‘𪗇’은 고대의 농기구를 말한다는 기록이 있다.<sup>32)</sup> 《爾雅》의 기록으로 볼 때 이 어휘는 원래 중국에서 농기구와 함께 조선지역으로 유입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③ 鞞角(4-44): 거친 신발

《急就篇》에 ‘印角’이라는 어휘가 ‘신발’로 기록되어 있으며<sup>33)</sup>, 《說文》에도 ‘鞞角’이 ‘신발’이라고 기록되어 있다<sup>34)</sup>. 《急取篇》은 西漢 元帝 (BC48~33) 때 黃門令인 史游가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칠 목적으로 만든 識字교본으로 양웅 《方言》보다 약간 이른 시기의 책이다. 한 초기에 신발을 지칭하던 단어 ‘鞞角’은 중국의 다른 지역 徐土<sup>35)</sup> 邳<sup>36)</sup> 圻<sup>37)</sup> 지역(오늘날 산둥성 일대)에서는 크고 거친 신발(大麤)을 鞞角이라고 하였으며<sup>38)</sup>,

31) 《爾雅》: “𪗇謂之𪗇.(𪗇는 𪗇이라고 한다.)” 郭璞<注>云: “皆古鍬鍤字.(모두 옛 鍬, 鍤字다.)”

32) 《說文》: “𪗇, 古田器也.(𪗇,는 옛 농기구다.)” 또 “𪗇, 𪗇也. 古田器也.(𪗇은 𪗇다. 옛 농기구다.)”

33) 《急就篇》卷二: “鞞鞞印角褐鞞巾.” 顏師古注: “印角, 屐上施也. 形若今之木履而下有齒焉. 欲其不蹶, 當印其角舉足乃行, 因爲名也.(印角은 屐위에 대는 것이다. 그 모양이 마치 오늘날 나무 신 밑창에 이가 있는 것과 비슷하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그 角을 우러러보며 발을 들고 걸어야 하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34) 《說文·革部》: “鞞, 鞞角, 鞞屬.(鞞, 鞞角은 신발 종류다.)”

35) 서徐: 서주徐州를 말하며, 《方言》에서 말하는 서주는 지금의 산둥성山東省 남부, 안휘성安徽省과 강소성江蘇省의 북부 지역에 해당된다.

36) 비현邳縣은 서한의 동해군東海郡에 속하며, 오늘날 강소江蘇 비현邳縣의 서남 지역에 있다.

37) 기沂: 옛날의 물이름이며, ‘기圻’라고도 쓴다. 오늘날 산둥성山東省 경내에 있다.

38) 《方言》: “麤者謂之屨, 東朝鮮洌水之間謂之鞞角. …… 徐土邳圻之間, 大麤

조선 어휘에서는 거친 신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양각은 아마도 신발과 함께 조선어에 유입된 중국어 어휘인 것 같다. 郭璞의 주에 보면 晉代에는 ‘옷칠한 신으로 툽니 같은 이가 있는’ 신발을 지칭하는 것으로 의미가 변하였다.

④ 𦵑(3-7): 즈, 액체, 쌀뜨물

《史記》에 ‘국물’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sup>39)</sup>, 의미상으로 조선 어휘와 매우 유사하다.

⑤ 膊(7-15)

《左傳》에서 ‘膊’은 ‘사지를 찢어 죽여 성곽에 내거는 형벌’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40)</sup>. 《說文》에서 ‘膊’은 ‘포를 얇게 떠 지붕위에 말리다’의 의미다. 조선 어휘에서 ‘膊’은 ‘고기를 (포를 떠서) 말리거나 다른 사람의 은밀한 비밀을 드러내거나 소나 양의 오장을 벗겨내는 것’을 의미했다. 《說文》의 의미가 조선 방언의 의미와 매우 유사하지만 아쉽게도 《說文》에 이것이 조선 어휘라는 언급은 없다. 당시 ‘膊’의 중국어 의미는 《左傳》에서 사용된 ‘사지를 찢어 죽여 성곽에 내거는 형벌’이었을 것이다.

⑥ 樹植(7-31): 서다. 세우다.

《左傳》에서 ‘樹’는 ‘세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sup>41)</sup>, 《周禮》에서

謂之鞫角.(거친 것을 屨라고 하고, 東北朝鮮洌水之間에서는 鞫角이라고 한다. …… 徐土邳圻之間에서는 크게 거친 것을 鞫角이라고 한다.)”(권4-40)

39) 《史記·張儀列傳》: “廚人進𦵑.(요리사가 국을 따르다.)” 司馬貞 索隱에 “𦵑은 국물이며, 𦵑은 汁”이라고 했다.

40) 《左傳》成公二年: “殺而膊諸城上.(그를 죽여서 성 위에다 찢어발기어 놓았다.)” 杜預 注에 “膊은 磔(찢어 가르다)이다.”라고 했다.

41) 《左傳》成公二年: “樹德而濟同欲焉.(왕들 자신이 덕을 닦아 확립시켜서 천하 만민이 다 같이 바라는 것을 향유하게 하였습니다.)” 杜預 注에 “樹는 立(세우다)”이라고 했다.

‘植’은 ‘세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42)</sup>. 조선에서는 같은 의미의 ‘樹’와 ‘植’이 합해져 복합어로 사용되었다.

⑦ 豨(8-5): 돼지

《左傳》에서 ‘豨’는 ‘수돼지’를 말했다<sup>43)</sup>. 《史記》에서도 ‘豨’는 ‘수돼지’를 나타냈다. 조선에서는 ‘돼지’를 통칭하는 어휘로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상 7개 어휘는 의미가 중국어와 같거나 연관이 있는 어휘들이다. 아마도 중국어에서 조선어로 유입된 어휘일 가능성이 크다. 중국에서 이주해 온 유이민들이 사용하던 어휘가 조선 어휘로 기록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⑧ 盱(2-5), 揚(2-5): 검은 눈동자

‘揚’은 《詩經》에서 ‘눈을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며<sup>44)</sup>, ‘盱’는 《易》에서 ‘위를 바라보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45)</sup>. 조선에서는 ‘盱’와 ‘揚’이 ‘검은 눈동자’의 의미다. 중국학자들은 ‘바라보다’와 ‘검은 눈동자’가 의미상으로 연관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유의 조선 어휘로 생각된다.

⑨ 涅(3-6): 바뀌다. 부화하다.

《論語》에 ‘涅’이 나오지만 이는 ‘염색하다’의 의미다<sup>46)</sup>. 염색하여 원래 색이 바뀌므로 ‘바뀌다’와 의미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지만,

42) 《周禮·山虞》: “植虞旗于中.(산우의 상징인 (웅호의) 깃발을 중앙에 꽂다.)” 鄭注에 “植은 樹와 같다.”고 했다.

43) 『春秋·定公十四年·左傳』: “野人歌之曰: 既定爾婁猪, 蓋歸吾艾豨.(마을 사람들은 그에게 노래를 불렀다. 당신들의 암돼지가 이미 안정을 찾았는데 왜 우리의 수컷을 안돌려 보내는가?)”

44) 《詩經·猗嗟》에 “美目揚兮.(아름다운 눈을 들다.)”라고 했다.

45) 《易·豫》: “盱豫悔.” 孔穎達 疏: “盱謂睢盱.” 朱熹 本義: “上視也.(‘위를 보다’의 뜻이다.)”

46) 《論語》에 “涅而不緇(검게 물들여도 검어지지 않는다면)”라고 했는데, 孔安國 注에 “涅은 검은 비단을 물들일 수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바뀌다. 부화하다’의 조선 어휘 ‘涅’은 ‘염색하다’의 중국 어휘 ‘涅’과는 다른 단어다.

⑩ 播(7-12): 헤어지다. 흩어지다.

《書》에서 ‘播’는 ‘분열하다. 흩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sup>47)</sup>. 《周禮》에서도 ‘播’가 ‘흩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글자는 원래 판본에 ‘擲’으로 되어 있었지만, 清代 盧文弨 《重校方言》에서 ‘擲’에 ‘헤어지다. 흩어지다’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오류라고 보고 ‘播’로 수정했다. 그러나 발음에 의거하여 기록된 글자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잘못이다.

이상 3개 어휘는 중국의 고대문헌에 등장하는 글자들이지만 《方言》에 기록된 조선 어휘의 의미와 연관이 없어 고유의 조선 어휘일 가능성이 크다.

## 2. 그 밖의 어휘들

《方言》이전의 중국 고대문헌에서 용례를 발견할 수 있는 어휘들 이외에 𠵼(1-8), 𠵼(2-5), 策(2-8), 癘(3-12), 𠵼(5-1), 𠵼(6-31) 등은 《說文》에 실렸다. 《說文》은 東漢의 許慎(AD58~AD147)이 저술하였으며, 《方言》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책이지만 오랜 동안 한자의 의미를 풀이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후대에 많은 사람들이 《說文》에 근거하여 글자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說文》에 실린 조선 어휘 가운데 다음 4어휘는 조선 어휘를 인용하여 글자를 풀이하였다.

① 𠵼(1-8):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울다.

47) 《書·禹貢》에 “又北播爲九河, 同爲逆河, 入於海.(또 북쪽에서 九河로 갈라져 함께 강을 거슬러 바다로 들어간다.)”라고 되어있으나, 舊題孔氏傳에는 “北播爲九河”가 “北分爲九河”라고 되어 있다.

𦉳은 《說文》에서 조선 어휘의 의미를 들어 글자를 풀이하고 있다.<sup>48)</sup> 또 《漢書》의 顏師古 注에서도 조선 어휘의 의미를 들어 이 글자를 풀이하고 있다<sup>49)</sup>. 《漢書》의 顏師古 注는 《方言》이 널리 유행한 이후이므로 《方言》을 참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② 𦉳(2-5): 검은 눈동자.

《說文》에서 ‘𦉳’는 ‘눈을 뜨다’의 의미이지만 조선지역에서는 ‘검은 눈동자’를 말한다고 풀이하고 있다<sup>50)</sup>.

③ 癘(3-12): 약물이 독한 것.

《說文》에서 ‘약이 독한 것’을 조선에서 ‘癘’라고 한다고 풀이하고 있다<sup>51)</sup>.

④ 𦉳(5-1): 솥.

《說文》에서 ‘釜’를 조선에서는 ‘𦉳’이라고 한다고 풀이하었다<sup>52)</sup>.

이상은 모두 조선 어휘를 들어 글자를 풀이하고 있는데, 《說文》에서 풀이한 내용과 《方言》의 내용이 일치하지만 《說文》에 양용 《方言》이라고는 언급하지 않았다. 許慎이 《說文》을 저술할 당시 참고한 방언이 양용 《方言》이었는지, 아니면 《方言》의 근거가 되었던 이전의 문헌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당시에 이미 이들 조선 어휘가 중국에 알

48) 《說文》에 “朝鮮에서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 𦉳이라고 한다.”고 했다.

49) 《漢書·外戚傳》: “悲愁于邑, 喧不可止兮.”라고 했는데, 顏師古 注에 “朝鮮之間에서는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을 일러 𦉳이라고 한다.”고 했다.

50) 《說文》: “𦉳, 張目也. 一曰朝鮮謂盧童子曰𦉳.(𦉳는 ‘눈을 뜨다’의 뜻이다. 또 朝鮮에서는 검은 눈동자를 𦉳라고 한다.)”

51) 《說文》: “朝鮮謂藥毒曰癘.(朝鮮에서는 약이 독한 것을 癘라고 한다.)”

52) 《說文》: “𦉳, 釜大口者. 朝鮮謂釜曰𦉳.(𦉳은 입이 큰 솥이다. 朝鮮에서는 솥을 𦉳이라고 한다.)”

려졌고 또 중국에서 사용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밖에 策(2-8)과 徙(6-31)가 《說文》에 나온다. 조선어에서 徙(6-31)는 ‘걷다’의 의미인데, 《說文》에서 “徙徙는 걷는 모습”이라고 풀이하였다.<sup>53)</sup> 그러나 《說文》에 이것이 조선 어휘라는 언급은 없다. 조선 어휘 ‘徙’가 《說文》에 수록된 것인지 아니면 중국어휘가 조선지역에서 사용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策(2-8)은 《說文》에 나오지만 의미상으로 관련이 없다.<sup>54)</sup>

양웅의 《方言》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은 이 책이 저술되고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의 일이다. 東漢시기의 다른 저작에서 이 책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漢書》<藝文志>와 <揚雄傳>에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양웅의 문장을 극찬한 王充(27~약 97)도 유독 《方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許慎의 《說文解字》(100~121)에는 지금의 《方言》과 일치하는 문장이 있지만, 양웅 《方言》이라고 말한 바 없다. 漢 靈帝(168~189), 憲帝(189~220)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應劭(AD178전후)가 《漢書集解》에서 양웅 《方言》을 인용하였고, 《風俗通義·序》에서 <揚雄答劉歆書>를 인용했다. 常璩(291~361)의 《華陽國志》에서도 양웅 《方言》을 언급했다. 그 후 魏의 孫炎(AD220전후)이 주해한 《爾雅》에서 《方言》을 인용했으며, 張揖(AD230전후)이 지은 《廣雅》에서도 《方言》의 어휘를 대량으로 수록하였다. 漢末 이후 魏晉시기에 나온 많은 주석서들, 그리고 특히 《廣雅》《玉篇》《廣韻》으로 이어지는 사전에서 《方言》의 어휘를 대량으로 수록하고 이를 풀이하면서 이들 어휘가 정식으로 사전에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漢代의 방언어휘는 중국어 표준어로 굳어져 갔다.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가 중국어 표준어가 되는 과정도 이와 같은 경로를 거쳤을 것이다.

53) 《說文》: “徙徙, 行貌.(徙徙는 걷는 모습이다.)”

54) 《說文》에는 “策, 馬箠(策은 말채찍이다.)”라고 하였지만 조선 지역에서는 ‘작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V. 《方言》 조선 어휘의 언어적 특징

## 1. 어음적 특징

단음절 어휘가 우세했던 고대 중국어는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면서 차츰 이음절화 되어가는 추세로 변화했다. 《方言》에 나타난 어휘에서도 이러한 양상을 엿볼 수 있는데, 《方言》의 어휘는 아직까지 단음절어가 월등히 우세하다. 그러나 《爾雅》와 비교해 이미 이음절어가 많아지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 가운데 단음절어휘는 𠵼(1-8), 𠵼(2-5), 揚(2-5), 策(2-8), 涅(3-6), 譁(3-6), 𠵼(3-7), 策(3-11), 壯(3-11), 癘(3-12), 𠵼(5-1), 餅(5-1), 甌(5-11), 𠵼(5-27), 檄(5-32), 樹(5-36), 徂(6-31), 掬(7-12), 膊(7-15), 豸(8-2), 抱(8-4), 猓(8-5), 鷓(8-9) 등 23개 어휘가 있으며, 이음절 어휘는 葉榆(2-29), 搖扇(2-34), 嬰盈(7-18), 漢漫(7-25), 眠眩(7-25), 鷓鴣(8-9), 蟪蛄(11-16), 鞞角(4-44), 樹植(7-31) 등 9개 어휘가 수록되었다. 조선 어휘도 역시 단음절어가 우세하지만 이음절어도 적지 않은 편이다.

《方言》은 당시 각 지역의 방언어휘를 수집한 책이지만 체제에 있어서 동의어, 유의어를 모아놓은 《爾雅》의 체제를 모방하였기 때문에 《方言》에도 동의어, 유의어 성분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sup>55)</sup> 그러나 당시 각 지역에서 사용되었던 방언 어휘는 기본적으로 그 어휘의 발음을 기록하였다. 당시 한자 이외에는 발음을 표기할 별다른 수단이 없는 가운데 한자로 방언의 발음을 기록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었을 것이다. 특히 언어권이 다른 이민족 어휘를 문자화 하는데 있어서는 그 어려움이 더욱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록해야 할 언어의 음절 구조가 중국어와 다

55) 《爾雅》와 《方言》은 비슷한 내용이 많다. 대표 해석자가 비슷한 경우도 많고, 풀이 글자가 비슷한 경우도 많다.(《중국언어학사》 濮之珍 저, 김현철 외 공역(2006) pp.115~124)

르다면 그 표기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을 것이다. 《方言》에 수록된 조선어 어휘는 얼핏 보기에는 중국어 어휘와 매우 흡사한 형태다. 그렇지만 양옹이 기록한 조선 어휘는 언어적으로 중국어와 다른 조선어의 발음을 한자로 기록한 것으로, 그 기록된 어휘가 얼마나 정확한지 지금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양옹은 《方言》에서 ‘轉語’나 ‘語之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동일한 어휘가 시간과 공간의 차이로 발음이 달라진 현상을 설명하였다. 즉 동일한 어휘의 방언음 차이를 양옹은 다른 한자로 기록하면서 ‘轉語’라고 표시했다. 《方言》이후에 ‘轉語’라는 용어는 후대의 학자들에게 발음이 비슷하고 의미가 통하는 낱말을 풀이하는 훈고 용어로 널리 사용되었다. 중국 학자들은 조선 어휘가 중국어임을 증명하기 위해 《方言》의 조선 어휘를 중국어와 발음상으로 연계시키고 중국어의 ‘轉語’로 간주하였다. 특히 조선 어휘 가운데 중국어의 ‘轉語’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어휘들은 ① 譌(변화하다): 化의 전어 ② 鑊(솥): 鼎의 전어 ③ 甌(동이, 장군, 질그릇): 長의 전어(목이 긴 병을 가리킴) ④ 漢漫(번민하다): 煩懣의 전어 ⑤ 脈眩(간질, 번민하다): 顛眩의 전어 ⑥ 鷓鴣(삵꾸기): 布谷의 전어 ⑦ 蟪蛄(거미): 蜘蛛의 전어 등이 있다. 이 어휘들 가운데 ‘漢漫’, ‘脈眩’, ‘鷓鴣’ 등은 중국어의 轉語일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譌는 化라는 동일한 발음의 쉬운 글자를 두고 왜 하필 어려운 글자를 써서 표기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鑊도 鼎이라는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글자를 두고 왜 하필 발음 차이가 거의 없는 다른 글자를 써서 표기한 점이 이해하기 어렵다. 甌은 목이 긴 그릇이기 때문에 長과 의미가 통한다고 풀이하는데, ‘목이 긴 그릇’의 사물명칭을 ‘길다’라는 형용사로 표현한 이 어휘도 납득하기 어렵다. 蟪蛄와 蜘蛛는 발음상으로 연계시키는 것이 무리다. 일반적으로 조선 어휘를 중국어의 전어로 간주하는 것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 2. 의미유형별 특징

《方言》은 체제에 있어서 《爾雅》를 모방하였지만, 당시 각 지역에서 사용되던 실제 어휘를 수록하였다는 점에서 동의어 및 유의어를 나열해놓은 《爾雅》와는 다르다. 내용 면에서 《方言》은 권1, 2, 3, 6, 7, 10, 12, 13에서는 단어를 풀이하였고, 권4에서는 의복과 제도를, 권5에서는 기물을, 권8에는 짐승을, 권9에는 병기를, 권11에서는 곤충을 풀이하였다. 우리는 《方言》에 기록된 어휘들을 통해 당시의 사회상을 엿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의복에 관한 어휘(권4)를 통해 당시의 의생활을 이해할 수 있으며, 양잠에 관한 어휘(권5)가 상당수 수록된 것을 통해 당시 양잠이 매우 발달했음을 알 수 있다. 陳與郊《方言類聚》의 분류법에 의거해<sup>56)</sup> 王智群(2007)은 《方言》에 수록된 어휘를 釋言(703), 釋人(188), 釋衣(75), 釋食(36), 釋器(248), 釋兵(31), 釋車(34), 釋舟(7), 釋水(6), 釋土(10), 釋草(33), 釋獸(22), 釋鳥(66), 釋蟲(72) 등 14가지로 분류하였다.<sup>57)</sup> 王智群(2007)은 《方言》에 수록된 어휘 가운데 일반 명사로 간주되는 釋詁와 釋言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문화어휘라고 했는데, 이러한 문화어휘를 통해 漢代의 사회문화적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方言》에 수록된 문화어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 (1) 땅을 갈고 파종하는 도구, 수확 도구, 가공 도구 등 농기구 및 농업생산
- (2) 닭, 돼지, 말 등 동물과 목축
- (3) 주식, 부식, 잡식, 조리방법, 취사도구, 식기, 음식풍속 등 음식과 양조 기술

56) 명대 陳與郊는 《方言類聚》에서 《方言》의 어휘를 《爾雅》의 분류법에 의거해 釋詁, 釋言, 釋人, 釋衣, 釋食, 釋宮, 釋器, 釋兵, 釋車, 釋舟, 釋水, 釋土, 釋草, 釋獸, 釋鳥, 釋蟲 등 16가지로 분류하였으며, 王智群은 이 가운데 釋詁와 釋宮에 관한 어휘가 방언 지역이 표기되지 않아 이를 제외하고 14가지로 분류하였다.(<《方言》與揚雄詞彙學思想研究>)(p.98)

57) ( )의 숫자는 수록된 어휘의 수를 나타낸다.

- (4) 상의, 하의, 두건, 관, 신발, 양잠도구를 포함한 방직도구 등 복식과 방직기술
- (5) 일용 도기, 가구, 기타 등 여러 가지 기물과 공예품
- (6) 가옥과 건축
- (7) 배, 수레 등 교통수단
- (8) 창, 방패, 화살, 검 등 병기
- (9) 친속호칭, 신분직위, 인간관계, 바둑, 춤, 토장풍속 등

광범위하게 수록된 어휘는 당시 사회의 면면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러나 아쉽게도 다른 자료를 통해 볼 수 있는 漢代의 도시와 상업의 발달, 음양오행과 종교, 제사 등에 관한 어휘는 《方言》에 수록되지 않았다. 양웅이 왜 이런 어휘를 수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우리는 《方言》에 수록된 어휘들을 통해 당시 사회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를 통해 당시 조선사회의 일면을 이해할 수 있다. 《方言》의 조선 어휘를 의미 유형별로 분류해볼 때 어떤 어휘는 전혀 수록되지 않았고, 또 어떤 어휘는 상당수가 수록되었다.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는 다음과 같다.<sup>58)</sup>

- (1) 釋言(14): 叵(1-8), 策(2-8), 葉榆(2-29), 搖扇(2-34), 譚(3-6), 湴(3-6), 徙(6-31), 掬(7-12), 膊(7-15), 嬰盈(7-18), 漠漫(7-25), 眠眩(7-25), 樹植(7-31), 斟(3-7)
- (2) 釋人(3): 盱(2-5), 揚(2-5), 癆(3-12)
- (3) 釋衣(1): 鞞角(4-44)
- (5) 釋器(6): 鎮(5-1), 鉞(5-1), 颯(5-11), 颯(5-27), 楸(5-32), 樹(5-36)
- (6) 釋草(2): 萊(3-11), 壯(3-11)
- (7) 釋獸(2): 豸(8-2), 猓(8-5)
- (8) 釋鳥(3): 抱(8-4), 鷓鴣, ■■ 8-9
- (9) 釋蟲(1): 蟪蛄(11-16)

58) 王智群<《方言》與揚雄詞彙學思想研究>(pp.192-193)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조선 어휘는 釋言 어휘가 17개로 가장 많고, 釋器 어휘도 6개로 적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釋食, 釋兵, 釋車, 釋舟, 釋水, 釋土의 어휘는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물론 이 중 釋舟(7), 釋水(6), 釋土(10)에 관한 어휘는 전체 《方言》에 수록된 어휘수가 많지 않다. 그러나 釋食(36), 釋兵(31), 釋車(34)에 관한 어휘는 《方言》에 상당수가 수록되었지만 조선 어휘는 전혀 수록되지 않았다. 또 《方言》에 상당히 많은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 釋人和 釋草에 해당하는 조선 어휘도 아주 드물다. 釋人에 해당하는 조선 어휘로는 肝(2-5), 揚(2-5), 癆(3-12)가 있으며, 釋草에 해당하는 조선 어휘로는 萊(3-11), 壯(3-11)이 있다. 釋衣도 《方言》에는 상당히 세분되어 있는 반면 조선 어휘는 고작 '신발' 하나만 수록되었다. 釋器는 취사도구와 일용 도기, 농기구와 기타 어휘가 수록되어 釋言외에 가장 많은 어휘가 수록되어 있다. 釋獸에는 맹수와 가축 어휘를 수록하고 있다. 《方言》에 비교적 풍부한 어휘를 수록하고 있는 釋鳥, 釋蟲, 釋草는 한 두 어휘를 수록하거나 거의 수록하지 않았다.

《方言》에 수록된 어휘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고조선 시기에 사용되었던 청동기 또는 철기의 각종 병기, 수레용 기구, 각종 농기구가 이 지역에서 다수 출토되었지만,<sup>59)</sup> 《方言》의 조선 어휘에는 이와 관련한 어휘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다. 방언 조사 대상자가 어느 계층, 어느 직업으로 국한되어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 VI. 조선 어휘의 중국어 표준어화 과정

양웅 《方言》에 대한 주석은 晉代 郭璞(AD275~AD323)의 《方言·注》를 꼽을 수 있다. 郭璞은 音, 義에 정통한 학자로 옛 문헌의 정리와 주석

59) 고조선 시기 출토 유물로는 한국식 동검, 청동창, 화살촉, 칼자루 끝, 철지 도끼, 가지창(戟), 쇠뇌, 수레 부속기구, 말재갈, 말관자 등이 있다.(《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p.382, 송호정)

에 큰 공헌을 하였다. 《楚辭》《山海經》《三蒼》 등을 주석하였으며, 또 당시의 말로 옛날 어휘를 풀이한 《爾雅·注》와 《方言·注》를 저술하였다. 그는 《爾雅·注》와 《方言·注》에서 자주 양용 《方言》과 晉代의 방언을 예로 들어 옛날 어휘를 해석하였고, 양용이 기록한 漢代의 방언과 晉代의 어휘를 서로 비교하였다. 《方言》과 郭璞의 《方言·注》는 약 300년의 시간 차이가 난다. 《方言》의 郭璞注를 통해 漢代 방언 어휘가 晉代에 이르러 변화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方言》에 나타난 漢代의 각 방언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어휘들이 晉代 郭璞注에 이르러 공통 어휘가 되었거나 통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漢代의 방언 가운데 특히 楚방언 어휘가 晉代의 공통어로 된 예가 많이 보이는 반면, 漢代에는 주요방언이었던 秦晉방언은 晉代의 공통어가 된 예가 의외로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sup>60)</sup> 이는 漢代의 남방방언 어휘가 晉代에 이르러 ‘中國通語’ 또는 ‘北方通語’가 되었음을 의미한다.<sup>61)</sup> 이후 중국어는 여러 혼란기를 거치며 방언이 한층 뒤섞이는 과정을 거쳤다.

또한 漢代의 방언어휘가 晉代에 이르러 나타나는 두드러진 현상은 단음절 어휘의 이음절화 현상이다. 이음절화는 단음절어에 의미가 유사한 다른 어소가 첨가되어 이음절이 된 경우, 어떤 방언의 두 어휘가 합성하여 이음절이 된 경우, 접미사 ‘子’가 붙어 이음절이 된 경우, 서로 다른 방언 어휘가 합쳐져 이음절이 된 경우 등이 있다.<sup>62)</sup> 《方言》과 《方言·注》를 통해 본 중국어는 漢代의 방언이 晉代에 이르러 많은 방언어휘가 표준어휘가 되고 단음절 어휘가 이음절화 되는 변화를 거쳤다.

《方言》에 기록된 조선 어휘가 이민족 어휘라 하더라도 일단 한자로 기록되어 《方言》에 수록된 이후에는 조선 어휘도 중국어의 다른 방언

60) 丁啓陣《秦漢方言》(1991) p.208.

61) 물론 우리는 郭璞注를 통해 晉代에도 방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晉代의 방언은 李恕豪(2000)에 의하면 대략 江東, 關西, 中州, 河北, 齊, 荊楚, 淮南 등 7개 방언이지만 실제로는 南越방언과 梁益방언(《切韻·序》근거)이 추가되어 9대 방언이라고 한다.

62) 丁啓陣《秦漢方言》(1991) p.210.

어휘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조선 어휘 가운데 郭璞注에 사용되어 晉代에도 계속 사용된 어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貉(8-2): ‘貉’와 同字. 호랑이와 유사한 맹수.

郭璞注에 “오늘날 강남에서는 貉狸라고 부른다.”<sup>63)</sup>고 해 北燕朝鮮에서 사용되던 ‘貉’과 關西에서 사용되던 ‘狸’가 합쳐져 晉代에는 江南지역에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② 壯(3-11): 다치게 하다.

郭璞注에 “오늘날 淮南人也 역시 壯이라고 부른다. 壯은 다치다(傷)의 뜻이다.”<sup>64)</sup>라고 해서 晉代에는 淮南지역에서 이 어휘가 계속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葉綸(2-29): 연약하다. 부드럽다.

郭璞注에 “오늘날 폭이 짧은 비단(短度絹)을 葉綸라고 명명한다.”<sup>65)</sup>고 해서 晉代에는 이 어휘가 다른 사물을 가리키는 어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郭璞注에 나오는 조선 어휘는 晉代에 淮南지역에서 사용된 ‘壯’과 晉代에는 다른 물건을 지칭하는 ‘葉綸’, 그리고 다른 방언 어휘와 합쳐져 이음절화 된 ‘貉狸’가 있다. 이상의 세 어휘를 통해 《方言》의 조선 어휘가 晉代에 이르러서 변화된 양상을 엿볼 수 있다. 《方言》의 조선 어휘들은 《玉篇》《廣雅》《廣韻》 등 후대의 문헌에 수록되면서 일반 중국어 어휘들과 동일하게 간주되고 조선 어휘도 다른 중국어 어휘와 마찬가지로 의미의 변화가 일어나고 음절이 이음절화 되는 변화를 거쳤다. 이러한 과

63) 郭注: “今江南呼爲貉狸.(오늘날 江南에서는 貉狸라고 부른다.)”

64) 郭注: “今淮南人亦呼壯. 壯, 傷也.(오늘날 淮南人은 또 壯이라고 부른다. 壯은 傷(다치다)이다.)”

65) 郭注: “今名短度絹爲葉綸也.(오늘날은 폭이 짧은 비단을 葉綸라고 한다.)”

정을 통해 조선 어휘는 중국어 표준어로 되었을 것이다. 물론 이런 결론을 내리기까지는 아직도 보다 세밀한 고증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VII. 맺음말

최초로 중국의 통일을 이루었던 秦나라와 뒤이어 영토가 크게 확장되었던 漢나라 때에는 이에 따른 언어와 문자의 통합이 매우 중요한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이러한 정치적 사회적 배경 하에서 탄생하게 된 《方言》은 先秦에서부터 漢代에 이르기까지 중국 각 지역의 방언어휘를 기록해놓은 방언사전이다. 《方言》에는 조선 어휘가 수록되어 있는데, 지금의 遼東지역에서부터 한반도 북부지역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方言》의 조선 지역은 역사적으로 볼 때 항상 燕과 대립하면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던 지역이다.

《方言》에 나타난 조선 어휘는 燕은 물론, 다른 어떤 중국어 방언과도 거의 연관이 없는 상당히 고립된 특성을 보이며, 지리적 문화적으로 조선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가 전국시기에 燕에 편입된 北燕지역은 조선과 많은 공통어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조선과는 달리 北燕지역은 중국 내의 다른 방언들과 접촉하기 시작하여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음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다.

흔히 중국학자들에 의해 중국어의 방언으로 간주되어오던 《方言》의 조선 어휘는 일부 어휘가 《方言》이전의 중국 고대문헌에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고대 중국어가 조선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판단되지만, 대다수의 조선 어휘는 조선 고유의 어휘일 것으로 짐작된다. 양용은 당시 조선어의 발음을 한자로 기록하였으며, 일단 한자로 기록된 조선 어휘는 《方言》이 널리 유행한 후 이민족 어휘가 아닌 중국어휘로 인식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들 어휘도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漢代이후 보다 뚜렷해진 어휘의 이

음절화, 의미의 변화 등 중국어와 유사한 변화과정을 거쳐 중국어 표준어가 되었던 것 같다. 또 《廣雅》《玉篇》《廣韻》 등 후대의 사전들이 이 어휘들을 수록하면서 《方言》 당시 이민족 어휘의 면모를 완전히 벗어 버리고 중국어화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 <參考文獻>

- 戴震, 《方言疏證》, 中華書局, 1974.  
 盧文弨, 《重校方言》, 中華書局, 1985.  
 周祖謨, 《方言校箋》, 中華書局, 1993.  
 華學誠, 《揚雄方言校釋匯證》, 中華書局, 2006.  
 丁啓陣, 《秦漢方言》, 東方出版社, 1991.  
 李恕豪, 《揚雄《方言》與方言地理學研究》, 巴蜀書社, 2002.  
 雷虹霽, 《秦漢歷史地理與文化分區研究》, 中央民族大學出版社, 2007.  
 王文光, 《秦漢時期東北的民族識別》, 《思想戰線》, 1995.6.  
 白兆麟, 《《方言》雙音詞探析》, 《古籍整理研究學刊》, 1999.2期.  
 李恕豪, 《從郭璞注看晉代的方言區劃》, 《天府新論》, 2000.1期.  
 陸華, 《論《方言》對《爾雅》古今語的記述》, 《南寧師範專科學院學報》, 2001.3期.  
 華學誠, 《論《說文》的方言研究》, 《鹽城師範學院學報》, 22:2, 2002.05.  
 陳榴, 《《方言》中‘朝鮮’語詞的解讀》, 《中國語文學》 45집, 2005.06.  
 王彩琴, 《揚雄《方言》用字研究》, 華東師大博士論文, 2006.  
 王智群, 《《方言》與揚雄詞彙學思想研究》, 華東師大博士論文, 2007.  
 柳玉宏, 《說“通語”》, 《蘭州學報》 2007:5期(總164期)  
 왕력 저, 이종진, 이홍진 역, 《중국언어학사》, 계명대학교출판부, 1983.  
 제리 노먼 저, 전광진 역, 《중국언어학총론》, 동문선, 1996.  
 복지진 저, 김현철 등 역, 《중국언어학사》, 신아사, 1997.

- 송호정,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2003.  
 오영찬, 《낙랑군 연구》, 사계절, 2006.  
 이연승, 《양웅: 어느 漢代(漢代) 지식인의 고민》, 태학사, 2007.  
 공재석, <漢代 방언 중 朝鮮方音에 관하여>《동양학》 5, 1975.  
 최동표, <양웅《方言》연구>, 서울대학 중문학과 석사논문, 1988.  
 전광진, <방언의 체제 및 중국어 언어학사에 있어서의 위상>(中文), 1990.  
 이현숙, <《方言》中の 朝鮮列水之間語彙釋例研究>, 《中語中文學》 17, 1995.  
 이연주, <양웅《方言》(漢代)에 나타난 동북 지역의 언어상황>, 《中國學報》  
 58, 2008.

<부 록>

《方言》에 수록된 조선 어휘<sup>66)</sup>

- 𠵼[\*hjuanx](1-8): 어린아이가 그치지 않고 계속 우는 것, 매우 슬퍼하다.  
 盱[\*hwjag](2-5): 검고 아름다운 눈. 검은 눈동자.  
 揚[\*rap](2-5): 검은 눈동자  
 策[\*tshrik](2-8): 작다. 뽀족하다.  
 葉榆[\*rap][\*ragw](2-29): 연약하다. 부드럽다.  
 搖扇[\*rjagw][\*hrjan](2-34): 신속하다. 빠르다.  
 涅[\*nit](3-6): 바뀌다. 변화하다. 부화하다.  
 譚[\*hwrag](3-6): 변화하다.  
 𡗗[\*tjəm](3-7): 어울리다.  
 策[\*tshjigh](3-11): 자蔴로도 씹. 풀이나 나무가 사람을 찌르다.  
 壯[\*tsrjaph](3-11): 찌르다.

66) 《방언》의 조선 어휘는 조선 어휘, 중국 상고음(李芳桂의 상고음), (권수-항목), 어휘의 의미 순으로 배열하였다.

- 癘[\*lagw](3-12): 약물에 중독되다.  
 鞞角[\*ŋaŋ][\*kruk](4-44): 거친 신, 신의 일종  
 鋏[\*tiənx](5-1): 솔.  
 鉞[\*pjiŋx](5-1): 솔  
 甌[\*drjaŋ](5-11): 동이, 장군 따위의 질그릇  
 𪔑[\*rjaŋw](5-27): ‘𪔑’와 同字. 삼, 가래, 쟁개비  
 楸[\*duanh](5-32): 나무 말뚝. 짧은 말뚝  
 樹[\*djugh](5-36): 침상 앞의 가로대  
 徙[\*drjigx, \*djigx](6-31): 다니다.  
 掬[\*kjəkʷ](7-12): 나누다. 나누어 서로 떨어뜨리다.  
 膊[\*phak](7-15): 햇볕에 말리다.  
 婁盈[\*gwjidx][\*riŋ](7-18): 화내다. 성내다. 꾸짖다.  
 漢漫[\*hanh][\*muanh](7-25): 번민하다.  
 眠眩[\*djiən][\*gwianh](7-25): 어지러워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병의 일종.  
 번민하다  
 樹植[\*djugh][\*djək](7-31): 서다, 세우다  
 豸[\*phjiæg](8-2): ‘豸’와 동자. 호랑이와 유사한 맹수.  
 抱[\*bəgwɔx](8-4): 알을 품은 닭, 품다.  
 猓[\*krag](8-5): 돼지  
 鷓鴣[\*pjək][\*pjəgx](8-9): 빼꾸기  
 鷓鴣[\*gwək](8-9): 빼꾸기  
 蟻蝮[\*dəkw][\*rag](11-16): 거미

### <中文提要>

揚雄《方言》所見的朝鮮詞匯分析

最初統一中國的秦朝和領土極大擴張的漢朝, 在統一的過程中, 語言和

文字的統一也就成爲當時重要的課題了。在這樣的社會背景下就誕生了揚雄的《方言》。這是一部記象從先秦到漢代中國各地方言詞匯的詞典。《方言》所說的朝鮮地區一般認爲是現在的遼東地區到韓國北部地區，歷史上總與燕有對立關係的地區。

《方言》中所見的朝鮮詞匯不論與燕還是與其他中國方言都沒有太大的共同點。可是戰國時期燕國所占領的北燕地區就表現爲與朝鮮的關係特別緊密，保留很多共通語。但是這時候的北燕詞匯同時也表現爲與中國其他方言有了接觸慢慢發生了變化。

中國學者們把《方言》中的朝鮮詞匯看成是漢語詞匯。確實一部分的朝鮮詞匯在《方言》之前的古代文獻中出現過。我們從這點上可以判斷的確漢語詞匯流入於朝鮮語中，但是大部分的朝鮮詞匯是朝鮮固有的詞匯。揚雄把當時朝鮮詞匯的發音用漢字記象下來，而這些朝鮮詞匯在《方言》大大流行以後，就不再被認爲是異民族的詞匯了。而且這些詞匯和漢語一樣，也經過詞匯的雙音節化等的變化，還有《廣雅》《玉篇》《廣韻》等後代字典收入了這些詞匯以後，就完成了詞匯的漢語化了。

주제어 : 揚雄《方言》, 朝鮮洌水, 北燕, 標準語化, 語言接觸, 通語, 郭璞

· 注

